

배포

2025. 1. 9.(금) /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##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신설1구역에

### 공공재개발 최초 이주지원센터 개소

- 사업 추진 관련 토지 등 소유자 의견 수렴 및 이주 상담 등 시행
- 신속한 이주를 통한 사업 추진 탄력 기대...27년 이주 완료 및 착공 기대

-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는 공공재개발 최초로 신설1구역에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이주 상담을 위한 이주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9일 밝혔다.
- 신설1구역은 신설동 일대 트리플역세권 입지로, 지난해 3월 공공재개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확보한 곳이다. 지상 24층, 지하 2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가구가 들어서며, 이달 말 분양공고가 시행될 예정이다. '27년 4월 착공 및 '29년 11월 입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.
  - 신설1 이주지원센터에서는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며 토지 등 소유자 대상으로 보상, 이주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 상담뿐만 아니라, 세무·회계 자문, 분담금 산정 기준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또한, LH는 센터를 통해 오는 7월 이주 개시 후 구역 내 안전·공가관리, 고령자 방문 서비스 등을 실시해 빈집 발생에 따른 안전 문제를 관리하고, 안전한 이주를 도울 예정이다.
  - 이주지원센터는 신설동 98-22번지 미영빌딩 2층에 마련됐으며, 평일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된다. 별도 사전 신청없이 방문할 수 있다.
- LH 관계자는 “주민 이주가 사업 속도를 결정하는 만큼 주민과의 소통 창구이자 원활한 이주를 도울 수 있는 이주지원센터를 마련했다”라며 “신설1구역이 공공재개발의 성공 사례이자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부서	수도권정비사업 특별본부	책임자	팀 장	한평수	(02-6006-0842)
		담당자	차 장	김종일	(02-6006-0854)



신설1구역 조감도



신설1구역 위치도